

# 남북 “수석대표 격 낮다”... 막판까지 신경전

## 北 김양건 대신 강지영국장, 정부 김남식차관 제시 명단 교환후 北 이의제기... 3차례 협의 타협 못해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막판까지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12일 열릴 예정이던 회담이 무산됐다.

남북은 상대 측 수석대표의 급이 낮아 회담 하루 전인 11일 오후 6시까지 대표단 명단도 확정하지 못한 채 실랑이를 계속했다.

남북 연락관은 이날 오후 1시께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 사무실에서 만나 대표단 명단을 동시에 교환했다.

그러나 이후 북측은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남북은 명단 교환 후 3차례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전화회의를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남북장관급회담을 제기했던 우리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내세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무접촉 등을 통해 류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단장(수석대표)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이 실무접촉에 이어 이후 관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서도 김양건 부장의 불가를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류 장관이 아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제시했다.

북측 역시 이날 명단 교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대신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선정해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자신들이 그동안

안 언급한 대로 ‘상급 인사’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수석대표)으로 해서 명단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회담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회담이 예정

대로 열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일부터 이틀날 새벽까지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이미 예고돼 있었다.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는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측은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발표

문을 냈다.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접촉에서부터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수석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북측에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을 수석대표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북측에 준 명단에 우리 측 수석대표는 차관급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가족 상봉 설레였건만...

남북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신청 접수처에서 김영현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원 칼럼

돼지를 가두지 않고 놓아먹이는 축산업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돼지의 꼬리는 다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있는데 어떤 한 마리의 꼬리가 반대로 꼬부라져 있었다. 관찰력이 대단한 한 젊은 돼지가 그것을 괴이하게 생각하며 물어뜯어 보았다. 거기에서 피가 났고 그 돼지는 ‘왜 그래?’ 하고 소리치며 피했다.

그 때부터 다른 돼지들이 피하는 돼지의 반대로 꼬부라진 꼬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그 괴이한 꼬리를 공격적으로 물어뜯었다. 그 괴이한 꼬리 물어뜯기를 즐기는 것이다. 꼬리 왼쪽으로 꼬부라진 돼지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그것은 놀이이자, 광기이다. 모든 놀이에는 광기가 따른다. 광기는 좋게 표현되면 놀이의 흥이나 신명이고, 축제가지만 나쁘게 표현되면 죽음의 축제(사육제)로 나타난다.

시체를 보고 달려들어 축제를 벌이는

간 카리스마 넘치는 반장은 학생들에게 명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차대한 고비에서 공부를 게을리해 낙제를 한다는 것은 나라에 대한 불충이다. 이 동무를 우리가 벌주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돌맹이로 한 차례씩 낙제한 동무를 때려주자.” 낙제한 학생은 돌맹이에 맞아 죽었다.

일본은 세계 제2대전을 대동아 성전의 반대로 꼬부라진 꼬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그 괴이한 꼬리를 공격적으로 물어뜯었다. 그 괴이한 꼬리 물어뜯기를 즐기는 것이다. 꼬리 왼쪽으로 꼬부라진 돼지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그들의 후예인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는 한국과 몽골과 중국과 필리핀을 식민 지배한 일본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 한국과 중국의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가 위안부 노릇을 하게 한 것을, 군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

## 광기(狂氣)의 역사

독수리나 하이어나 같은 성질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 모든 스포츠나 가라오케 노래방이나 폭탄주 마시는 단란주점들은 광기를 해소하는 방편이다. 가라오케 노래방의 원조는 일본이다.

소아마비로 인해 몸이 불편한 어린 학생을 도와주는 선행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아이를 박해하고, 자기의 책가방을 들고 오라고 강압하고, 돈을 갈취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박해하기를 즐기는 악동들이 있다.

이 땅 학생들의 ‘일진회’란 것도 광기의 모양새이다. 일진회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94년 겨울 전북 순창에서 잡힌 전봉준이 일본군들에 의해 참담하게 서을까지 압송되어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나는 소설 ‘겨울잠, 봄 꿈’으로 형상화하면서 느꼈다.

일본에 광기의 역사가 흐른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한 해 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장에게서 들었다. 교장은 애국심에 대한 훈화를 하면서 ‘일본 어린 학생 집단의 애국심’에 대한 일화를 말했다.

세계 2차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중학교의 한 학생이 낙제를 했다. 낙제는 다름아닌 정지인들이 한국 정벌을 주장하는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을 말한다. 그 반의 학생들이 낙제한 학생을 뺏신으로 데리고 갔다. 학생들을 이끌고

행위라고 말했다. 그들의 선인들이 대동아 전쟁이 대동아(아시아 전역) 공영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 침략의 역사를 미화 왜곡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는 오래다. 36년 동안의 한국 식민지배 이후에는 대동아의 성전이라고 미화된 세계 2차대전이 있었고, 1894년을 전후해서는 청일전쟁과 한국의 동학군 싸움이 작전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으로 불리는 7년 침략전쟁이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무수한 해적들의 한반도 해변과 섬지방의 노략질이 있었다.

일본은 자기에 국내의 사정이 불안정하면 한반도를 침범했다. 청일전쟁과 한국의 식민지배 당시의 일본 실세 우두머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였고, 임진왜란 당시의 우두머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였다.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을 ‘정한(한국 정벌)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다. 아베, 하시모토 따위의 극우 세력들은 그 정한세력의 후예들이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국 정벌 광기의 한 자락이다.

일본에서는 정지인들이 한국 정벌을 주장하면 그 나라 안에서 인기가 상승하는데, 참모도 이상한 열등감이고 아첨한 광기이다. <소설가>

## “남북당국회담, 민족문제 해결 출발점되길”

박준영 지사 밝혀

박준영 전남지사는 11일 “남북당국회담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남북당국회담에 부처”라는 논평을 내고 “남북은 많은 현안이 있지만 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차분한 대화와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민족의 미래를 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이뤄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큰 시각을 갖고 작은 부분들을 지혜



롭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선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적 대치 완화와 남북한 주민 왕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등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6·15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일들이 꼭 이뤄져 남북화해의 시대를 열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방정가

###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 발의

광주시의회 이은방(민중·북구 6) 의원은 11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점점단을 설치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친환경식재료 공급시스템을 만들어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시민의 힘’ 광주시 창립

시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의 힘’이 지난 10일 광주 북구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시민의 힘’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새로운 정치 실천과 공존의 가치 실현, 창조적 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이근우(55) 변호사를 상임대표로 선출했고, 가수 김원중씨를 비롯한 6명을 공동대표단으로 선출했다.

시민의 힘은 ‘시민 리더십센터’를 설립, 인재양성과 시민교육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코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동전동 공장·창고 임대 대1300㎡, 건1400㎡

보2천 월3백만보2천 월3백만

###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담양군 금성면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시설 완비,펜션,모텔 적합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 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산청동 청곡리(생산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가)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담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미와목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류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95천만 최저가3.98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93천만 최저가2.4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2억 최저가1.94천만

###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평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94억 최저가1.1억

### 토지 매매

- ▶회남읍 연양리 자연녹지 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2억2천만  
최저가1.92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